

두심양재



오병이어 40년, 아름다운 동행

지난 40년, 오병이어 공동체는 우리가 가진 작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양과 복음’으로 식품영양 전문인들을 부르시고 총체적 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한 주님의 초대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 경륜 속에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전략가이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같은 비전을 주시고, 아름다운 연합 기관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1986년 8월 창립된 「오병이어선교회」가 2022년 5월 「오병이어선교재단」이라는 법인격을 갖추었으며 선교리더십을 양성하고 파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3년 3월 설립되어 공동체 안에서 선교 비즈니스모델을 수행 하였던 수양급식은 2026년 3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선교회를 모체로 2006년 5월에 설립된 「(사) 위드」는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기관으로 함께 한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고 2003년 4월에 설립된 「위드 영양개선 연구소」는 연구와 전문인 양성 교육을 통해 선교하는 기관으로 공동체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 주신, 선교 전략과 각 사람을 인도하신 이야기는 몇 날 며칠을 밤새워 나누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선교 이전에 선교적 존재가 되기 위해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도록 돕는 일에 전심을 다하신 오병이어 창립자 회장님의 헌신의 삶과 순종의 정신이 계속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권면과 위로, 필요에 따라 기꺼이 나누는 삶,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앞으로도 오병이어 공동체에 단단한 바탕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가 드릴 것은 가지고 있는 떡과 물고기로 앞으로도 굶주린 영혼을 먹이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이 모든일에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오병이어 사역자 우리 모두가 날마다 진심 어린 성찰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곽미란 대표 (오병이어선교회)



1



2



3

1 45기 듀오 WCS 2025.10.28(화) ~ 12.5(금)

2 제2회 동아프리카 선교사컨퍼런스 남아공 케이프타운 2026.6.8.(월).~6.13(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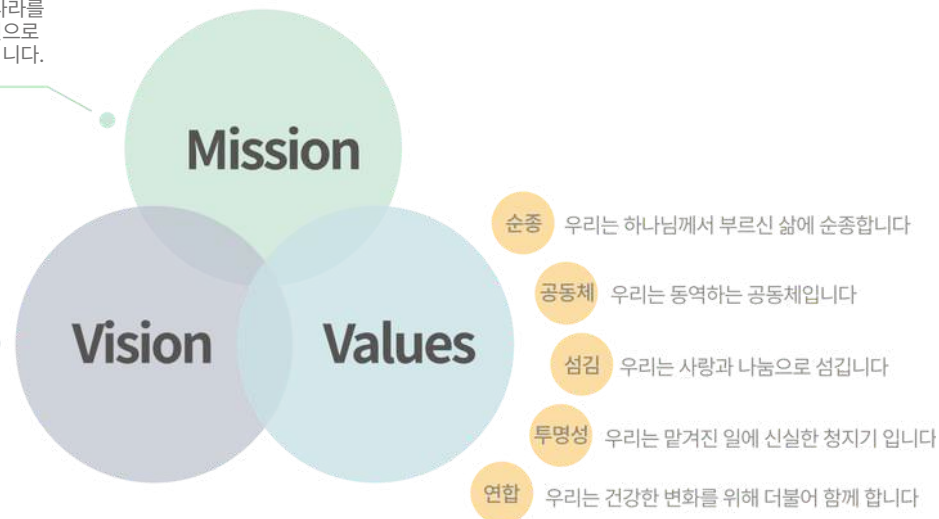
3 아시아 권역 선교사컨퍼런스 인도네시아 JIU 2026.7.13.(월).~7. 18(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막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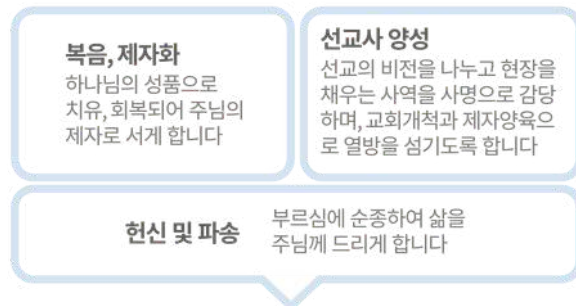
1986년 설립된 식품영양전문인 선교단체로서 식품영양의 상대적 저개발지역인 Yellow Window의 회복을 위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총체적 선교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이
전인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섬깁니다.

전인적인 건강한 변화를
이루고 함께 성장하는
제자 공동체를 세웁니다.



Mission Strategy 중점전략



총체적 선교



「풍성해」는 오병이어선교회의 공식 회지
이름으로 연 1회 발간됩니다.



표지 | 황성아 작가 작품사진 협조
명제 : 씨 맺는 채소 (창1:11)
규격 : 90.9cm*72.2cm
재질 : Oil on canvas

2026년 통권 9호

발행처 오병이어선교회
발행인 광미란
발행일 2026년 7월 31일
기획 및 편집 오병이어선교회

주소 [03996]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길 47
(서교동442-5) 수양빌딩
전화 02)322-4630
이메일 52@yellowwindow.org
홈페이지 www.yellowwindow.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yellowwindow52
인스타그램 fngn_52

CONTENTS

- 03 칼럼 광미란 대표 (오병이어선교회)
- 06 선교사 파송 현황
- 08 [특집] 제2회 동아프리카 선교사 컨퍼런스
- 12 [특집] 아시아 권역 선교사 컨퍼런스
- 14 선교기획 시리즈
- 14 권성찬 대표 (GMF)
- 16 한철호 상임대표 (미션파트너스)
- 18 선교현장 이야기1
방글라데시 선교현장 이야기 (강유습)
- 20 선교현장 이야기2
탄자니아 동아프리카영양개선센터 (장지혜)
- 22 선교현장 이야기3
미얀마 수양베이커리 (고은경)
- 24 선교현장 이야기4
대만 성경의 맥과 핵 사역 (허계영)
- 25 오병이어+People
내가 만난 오병이어 (김윤실)
- 26 오병이어선교재단 이사장 이·취임
- 28 오병이어 +News
- 32 재정보고
- 33 후원자 명단

섬기는 사람들

(재) 오병이어선교재단 이사회

이사장 김재철
고 문 이영남, 이용숙 (설립 초대회장)
감 사 김대형
이 사 광미란 신용백 이용규 이일영 최선혜

오병이어선교회 대표 광미란

오병이어 해외선교위원 이용숙 광미란 김미순 마진영 유수미 이옥
선교/교육 훈련원 이용숙, 주은혜
본부 사무국 한상희(행정/선교) 권오선(행정/선교)
김예림(홍보/후원자) 주범순(선교사 지원)

보안국가

주은혜,
최갈렙/김수아(소망, 모세, 사랑),
김축제/김하늘(이삭)
김문수/정문주

비거주 선교사

천요한/유한나(사무엘, 자이넷)

몽골

윤향숙, 김창식/김선미(예찬, 예진, 예준),
박경희, 이영옥

중국

대만

한국

서울본부, 세종대전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구경북지부
부산경남지부

라오스

송성아,
임재민/고주영(려언, 려희, 려하)

방글라데시

강유섭/남은혜(주영, 주희)

미얀마

양희선/고은경(승현, 수윤)

탄자니아

김동희, 이용숙,
길미정, 고하늘, 이도경
김인송/고윤희(새롬, 로이, 라온)
김문석/장지혜(민찬), 윤혜영

마다가스카르

유수진, 장준호/조시경(윤지, 원준)
안정미, 홍재호/권미령, 오명혜

캄보디아

김선미, 장성은

인도네시아

이용규/최주현
(동연, 서연, 하연, 정연)
김혜정

Yellow Window는 복음의 소외,
굶주림과 가난, 영양불량의 악순환을 끊고,
전인적인 회복을 꿈꾸는 우리 이웃들의 땅입니다

- ★모성과 영유아의 심각한 영양부족을 해결할 긴급한 영양사업을 중심으로 한 최우선적인 접근이 필요한 우선중점사업국가
- ★식량안보, 식수위생, 국민곤충의 영양문제를 해결할 통합적 중재 사업이 필요한 국가
-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영양부족과 영양과잉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장기적 개발 사업이 필요한 국가

+ 제2회 동아프리카 선교사 컨퍼런스 +

그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요 20:21)



■ 제2회 동아프리카 선교사 컨퍼런스가 2026년 6월 8일부터 12일까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그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요20:21)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본부,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잠비아에서 온 총 25명의 사역자와 선교사 그리고 6명의 선교사 자녀가 참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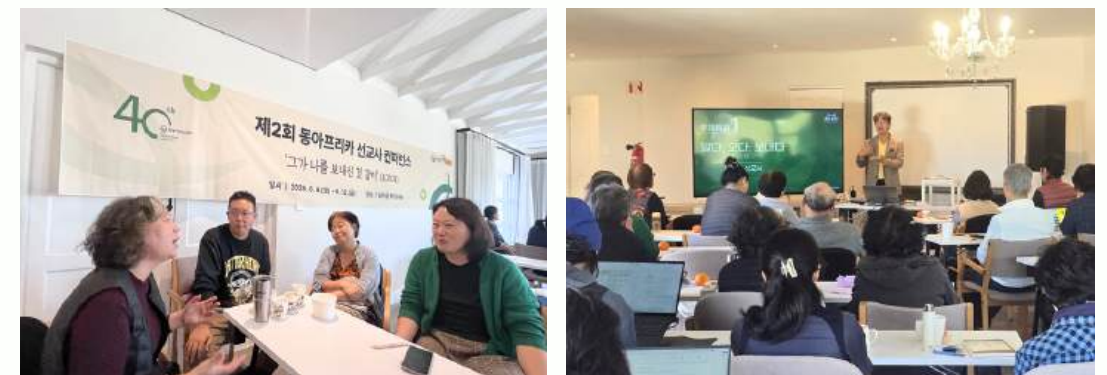
#첫째 날 | 보내심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다

이도경 선교사의 인도로 열린 예배에서는 김문석 선교사가 '오셔서 보이시며 보내신 예수님'(요한복음 20:19-2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머물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아프리카로 보내신 선교사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보내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각자가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며 서로를 환영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뜻한 교제 속에서 공동체의 가족됨을 다시 확인하며 컨퍼런스의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 하나님을 알고, 보내심에 응답하다

장준호 선교사가 '알다, 오다, 보내다'(요한복음 7:29, 17:18)를 주제로 첫 번째 특강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씀과 함께 오병이어 공동체에 와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삶을 간증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생명의 떡을 나누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아가자는 도전을 전했습니다.



특집

오후에는 외부기관인 PSFA(Peninsula School Feeding Association)의 대표 Petrina Pakoe가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PSFA는 "배고픈 아이는 가르칠 수 없다"는 슬로건 아래 지난 67년 동안 33,000명 이상의 어린이와 138개 공립학교, 235개의 ECD(Early Childhood Development) 센터에 매일 아침과 점심 급식을 제공하며 귀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을 통해 길미정, 임희진, 김동희, 유수진, 고하늘 선교사가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누었습니다. 참석한 모두는 깊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 하나님이 이루실 열매를 바라보다

오전에는 케이프타운의 대표 명소인 테이블 마운틴과 희망봉을 방문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1,085m에 위치한 평평한 식탁 모양의 테이블 마운틴 정상에 올라 케이프타운의 전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광대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어 방문한 희망봉은 1488년 포르투갈의 항해사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발견한 곳(Cape)으로, 아시아(인도)를 향한 새로운 해상 무역로를 개척한 탐험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저녁에는 국가별 사역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잠비아의 길거리 아이들 사역을 비롯해 탄자니아의 한국학 센터, EAIN(동아프리카 영양개선센터), EAA Church(동아프리카로 보냄받은 교회),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나니아센터와 비나1센터, 남부 톨리아 비나2센터 사역을 함께 나누며 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 다시 보내심을 받는 공동체

오전에는 광미란 대표가 '오병이어가 추구하는 선교공동체'를 주제로 두 번째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오병이어선교회와 연합하는 기관들이 하나의 비전 안에서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로 심벌을 통일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으며, 공동체가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우지성 본부장의 인도로 '궁금증을 깨우다'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선교사 정년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하고, 공동체의 여러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이용숙 초대회장은 '우리의 분깃, 선교의 상황화에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세 번째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선교사는 신앙의 본질인 확고한 믿음과 삶의 영성을 갖추어야 하며, 올바른 사고방식과 행동, 에티켓, 좋은 습관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현지인 동역자들과 기쁨으로 관계를 맺을 때 제자가 세워질 수 있으며, 리더에게는 책임과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격려를 전했습니다.

저녁 평가회에서는 장준호 선교사의 인도 아래 참석자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오병이어 공동체 안에서 가족됨을 경험하며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감사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조시경 선교사의 인도로 드린 달는 예배에서 홍재호 선교사는 '40년 그리고 다시 보내심'(요한복음 20:2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지난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부르심 앞에 더욱 깊은 헌신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성 목사의 인도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분별과 분찬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했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다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이번 컨퍼런스의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습니다.

특집

+ 오병이어 아시아 권역 선교사 컨퍼런스 +

그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요 20:21)

2026 아시아 권역 선교사 컨퍼런스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JIU에서 '그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요 20:21)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아시아 8개국과 아프리카 2개국, 그리고 한국본부에서 총 39명의 선교사와 사역자가 참여했으며, 5명의 선교사 자녀도 함께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보내심 앞에 다시 서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시는 분이심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는 예배에서 김창식 선교사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선교지로 보내신다고 선포했습니다. 환영의 시간에는 참석자 소개와 함께 역대 이사장 및 이용숙 초대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환대하며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 주셨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윤항숙 선교사는 지난 40년간 몽골 선교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비즈니스 선교에서 학교급식과 교회 사역, 전문인 양성으로 이어진 선교의 여정과 현지인 중심의 선교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JIU 캠퍼스를 둘러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현장을 돌아보고,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함께 품었습니다. 이어 대만, 방글라데시, 미얀마 선교사들의 사역 나눔을 통해 각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광미란 대표는 '오병이어가 추구하는 선교공동체'를 주제로 공동체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소개하며 변화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도 복음 중심의 성찰하는 선교공동체를 세워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저녁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김혜정·송성아·장준호 선교사와 쉰영판디 지부장이 삶과 사역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다시 새기며 공동체와 각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다

둘째 날은 선교가 혼자서 사명이 아니라 함께 세워 가는 공동체의 사명임을 배우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윤상 감사는 '내가 믿는 것과 아직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이해를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팀 사역, 협력 사역, 공동체 사역'을 통해 선교는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강조하며 후원자와의 동역, 건강한 시스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의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각 선교지에서 이루어 오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고, 선교사 관리규정 개정안을 논의·의결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김인송 선교사와 보야 지부장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인도하신 선교의 여정을 간증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저녁 연합예배에서는 오병이어와 JIU 사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날 사랑하심'을 각 나라의 언어로 특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조문철 선교사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권면했습니다. 이용숙 초대회장은 '우리의 분깃, 선교의 상황화에 준비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선교사의 정체성과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현재의 사역과 다음 세대, 현지 지도자, 선교훈련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몸 된 공동체를 다시 확인하다

셋째 날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의 기쁨을 다시 확인하며 새로운 사명을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 예배에서 박경희 선교사는 누가복음 7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의 길임을 전했습니다.

이어 반둥(Bandung)을 찾아 전통 공연을 관람하고, 전통 악기 앙클룽(Angklung)을 함께 연주하며 언어와 문화를 넘어 하나 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우지성 본부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믿음의 여정과 사역의 은혜를 나누며 공동체와 함께 걸은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평가회에서는 공동체가 한 가족임을 다시 확인하고 각 선교지의 사역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마지막 성찬식에서는 서로 떡과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임을 고백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돌보는 오병이어 공동체의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보내심을 다시 품으며

이번 컨퍼런스는 선교 현황을 나누는 자리를 넘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과 예배, 사역 나눔과 기도, 그리고 교제와 성찬을 통해 참석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한 공동체로 더욱 세워져 갔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주제는, 모든 참석자가 다시 품게 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복음으로 섬기며 함께 걸어갈 오병이어 공동체의 여정은 앞으로도 각 선교지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선교와 성찰

권성찬대표 (사)한국해외선교회(GMF)

선교에 왜 성찰이 필요할까요?

‘변화하는 선교’라는 책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보쉬는 왜 ‘선교학적 성찰이 기독교 선교에서 필수적’ (Missiological reflection is therefore a vital element in Christian mission.)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선교의 실천은 물론이고 선교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실천에서 성찰이 중요한 이유는 성찰이 없다면 누군가가 전해 준 - 비록 그 누군가가 성찰의 결과로 전해 준 것이라 해도 - 어떤 선교 이해, 선교 운동, 선교 전략, 선교 방식을 하나의 형식 혹은 답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거나 환경이 변하거나 오늘날처럼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이할 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 - 의존도 형성, 지속가능하지 않은 프로젝트 등-를 양산하게 됩니다. 비록 누군가에게서 전해받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성찰을 위한 시작이 되어야지 최종 답으로 고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실천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교의 본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만일 성찰하지 않는다면 과업 혹은 실행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성찰하게 하셔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성찰이 없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상황을 단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그 결과, 과업과 사역에 있어서는 나름 성공한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그분의 초대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찰은 선교에 있어 실천과 본질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성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성찰하지 않는 문제가 단순히 선교사 개인의 문제로 그친다면 본인만 그 문제를 감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선교사가 성찰하지 않으면 본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현지 공동체에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지 공동체 스스로 자생적인 예배 공동체, 즉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를 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강요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성찰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면 현지 공동체는 무엇이 동기가 되어 사역에 참여할까요? 외부인이 주는 어떤 것에 의존하여 참여할 가능성이 많으며 그것이 중단되면 사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현지 공동체는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며 결단하는 주체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선교사가 먼저 성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현지 공동체의 성찰을 돕고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떤 형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선교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선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섬기는 현지 공동체를 위해서도 성찰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성찰할까요?

우선은 주어진 상황에서 마주치는 모든 문제들을 단순히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성찰해야 합니다. 마치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열심히 선교하려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신 것에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거나, 이해는 안 되지만 무조건 순종했더니 유럽이라는 새 선교지를 얻게 되었다고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 막힘의 상황 속에서 아주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보다 과업을 우선했던 자신의 선교 이해로 인해 마가를 두고 바나바와 심히 다툰 것을 깊이 반성했을 것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이전과는 다른 선교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기도처를 찾고 여성인 루디아와 동역한 것, 아텐의 회당이 아닌 광장에서 복음을 변증한 것,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역한 것 등). 그리고 아텐에서 이전에 스테반이 했던 이야기 -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사실 - 를 문장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듯 자신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음을 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개혁이 아니라 사람개혁을 한 것입니다. 성찰은 물론 혼자 깊이 당면한 것들에 대해 깊게 살피는 기본이고 시작이지만 더 나아가 그런 성찰을 함께 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는 학습 공동체(learning community)인 동시에 신뢰와 우정의 공동체(trust and friendship community)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학습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놀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정과 신뢰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되 좋은 책을 함께 학습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초대해 이야기도 들으며 학습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성찰은 성찰 자체로 최종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보다는 하나의 문을 열어 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또 다시 다른 문을 열어줍니다. 결국 일상의 성찰은 말씀(성경)을 향하게 되고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새롭게 얻는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시 우리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고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낯선 것을 밀쳐내기보다 의미를 발견하고 수용하며 성숙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다시 이 상황이 본문을,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도록 인도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여정을 가는 동시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보쉬를 인용하며 글을 시작했으니 보쉬로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보쉬는 ‘쇠파리(gadfly)’라는 비유를 가져옵니다. 쇠파리는 크기도 크고 웅웅거리는 소리도 커서, 동물이나 사람을 몹시 성가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선교에서 쇠파리는 선교학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 어떤 행동을 하려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선교학이 ‘그게 맞아?’, ‘그렇게 하면 점점 의존도만 높아지는 거 아냐?’ 등 성가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쇠파리가 크면 클수록, 즉 우리의 선교학이 깊고 넓을수록 이런 성가신 성찰이 깊어지고 더욱 바르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선한 선교 사역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부작용을 만드는 사역이 아니라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기독교 시대의 한국선교의 패러다임 전환

한철호 상임대표 (미션파트너스)

선교 패러다임의 이동

오늘날 한국교회의 선교는 큰 변곡점에 서 있다.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관점에서의 통찰이 필요하다. 비서구권 교회의 성장을 오랫동안 주목해 온 선교 역사학자 앤드루 월스는 지난 2000년 교회의 확장 역사 속에서 세 번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다고 분석한다.

첫 번째 전환점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유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이방인에게 ‘주(Kyrios)’로 선포한 사건이다(행 11:19~20). 이 사건은 복음이 유대인 공동체를 넘어 헬레니즘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복음 확산의 길을 열었다.

두 번째 전환점은 5세기 이후 북유럽과 서유럽의 복음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이다. 이 시기에는 기독교 왕국이 형성되면서 국가 권력과 기독교가 결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서구 기독교는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텐덤 시대를 열게 되었다. 즉 힘에 의한 기독교 확장시대가 최근까지 계속된 것이다. 이 힘은 과거는 식민지 열강의 힘이었고, 근래에는 돈이었다. 그러나 최근 서구 교회의 침체로 힘에 의한 선교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다. 서구선교의 끝 부분에 시작된 한국 선교도 교회의 정체와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한 선교자원의 축소로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다.

세 번째 전환점은 현재 우리는 기독교가 남반구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모든 지역에 교회가 존재하는 ‘세계 기독교(World Christianity)’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 개념은

오늘날 기독교의 본질적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2000년에 이르러 기독교는 전 세계적 종교가 되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비서구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1900년 초에는 세계 기독교인의 80%가 서구에 살고 있었으나, 2026년 현재에는 그 비율이 역전되어 약 78%가 비서구 지역에 살고 있다.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기독교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선교도 마찬가지다. 즉 이전에 선교지(mission field)였던 나라들이 이제는 선교 하는 나라(mission force)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 차례의 역사적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전환이 선교의 방식과 이해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을 동반했기 때문이다.

패러다임(paradigm)이란 한 시대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틀을 의미한다. 과학철학자 토머스 쿤은 기존의 과학적 틀이 한계에 봉착할 때 새로운 체계로 대체되는 과정을 ‘패러다임 전환’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특정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발생하며,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필연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원리는 과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선교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단순한 의지나 선택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환경과 상황의 변화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 교회와 선교가 새로운 패러다임(작동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에 기인한다. 한국교회와 선교가 이를 인지해야 한다.

태도의 변화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한국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때, 전략이나 방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태도의 변화이다.

과거의 선교는 힘을 바탕으로 한 식민 제국주의적 구조, 그리고 최근까지는 경제력과 주도권을 기반으로 ‘어디에서 어디로(from-to)’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선교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확장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는 선교의 주체와 방향이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2024년 로잔 4차 서울대회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다중심적(Polycentric) 선교 시대의 도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 가치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며, 단순한 사역의 협력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관계 속에서 신뢰를 형성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것은 ‘함께 일하는 관계’를 넘어 ‘서로 친구가 되는 관계’ 속에서 서만 실현될 수 있다. 과연 한국선교는 이제까지 했던 방법을 고수할 때 세계교회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한국 선교는 선교지에서 그들의 친구로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힘을 기반으로 한 일방적인 외부자로 인식되고 있는가?

미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강유습 선교사 (방글라데시)

할렐루야!

저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20년이 넘도록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이 나라는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약 91%, 기독교인은 0.29%에 불과합니다.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 되는 좁은 국토에 약 2억 명이 살아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밀도를 가진 사회주의 성향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한 복음의 사역

무슬림이 많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선교사들과 연합하여 NGO를 설립했습니다.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Community Health Education(지역사회 건강교육) 사역을 진행하며 보건과 건강교육을 통해 주민들과 공동체를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Evangelism'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역이지만, 이슬람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Education'이라는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했던 사역은 하지 않지만 현지인 교회를 통해 전도하는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해 세워지는 다음 세대

다카에서는 개인적으로 유치원 사역을 통해 주일학교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유치원 운영을 중단하고 주일학교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해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몇 학생들과는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자를 세우는 사역의 한계로 지금은 주일학교에 3파트를 나누어 가르치고 제자 될 사람을 계속해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유치원 할때 일하는 R 아주머니가 글자를 배우고 지금은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서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주일학교를 하고 주변의 여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늘 영적전쟁 같은 삶이지만 말씀과 연합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로 경험한 하나님의 치유

주일학교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한 학생의 아버지는 림프종 암으로 생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찾아가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회복되어 지금은 다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 여학생은 심한 빈혈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주일학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이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막 16:18)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대로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선교

강 선교사는 3년 전부터 선배 선교사님이 섬기시던 한인선교교회를 맡아 한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의 선교는 무엇보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세계선교사 줌 새벽기도회인 KWMI 모임, 줌 한인선교교회 새벽기도와 현지인 SNS 기도모임, 저녁 줌 기도모임을 통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여러 선교사 가정이 함께 모여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위해 중보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맺어가는 복음의 열매

특히 매주 토요일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은 부군이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소천하시고 난 후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실제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되며 다카 외곽에 있는 나라온곤즈에 계신 선교사님도 멀리 계셔서 매주 참석이 불가능하여 매주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 그 지역에 그리고 신학교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함께 섬기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에게는 코칭 시스템을 적용하여 더욱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사역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며,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것을 소망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로 동역하시는 여러분들의 섬김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1.주일학교 구제 지원 2.함께한 기도로 암을 이겨낸 지체 3.주일학교

동아프리카 12개국의 아이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동아프리카 영양개선센터의 첫 여정

장지혜 선교사 (동아프리카 영양개선센터 소장)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안 갈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이사야 58:11)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시작된 영양 사역

2026년 6월을 기점으로 만 2년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아프리카 영양개선센터(EAIN)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탄자니아에 가정으로 파송받기 전, 몽골에서 약 5년간 몽골영양개선연구소(MIN)에서 학교급식과 만성질환 예방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결혼 전의 일이기에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경험을 사용하시기 위해 저를 부르셨습니다.

동아프리카 영양개선센터의 비전

2025년 10월, 동아프리카 스와힐리어권 12개국(우간다, 르완다, 소말리아, 브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코모로,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의 지역주민들이 영양불량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전인적인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비전을 품고, 음베야의 모라비안 교단을 기반으로 한 테쿠대학교(TEKU)에 동아프리카 영양개선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TEKU 대학과 오병이어선교재단의 MOU 체결 과정부터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큰 비전 가운데 센터 구축부터 첫 운영까지 맡겨주시고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시작과 함께 이사야 58장 11절(너는 물 댄 동안 갈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동아프리카 영양개선센터가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동아프리카 12개국을 섬기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AIN 비전체계도



EAIN오픈식



EAIN동역자들(인턴 메트리카, 에리카, 이세라 단원)



학교방문조사_영양담당교사 인터뷰



음베야 시청 정부관계자와 미팅

첫 번째 사역, 학교급식 모델 구축

개소 후 첫 사역은 EAIN의 실행 파트너인 위드 탄자니아와 함께 탄자니아 학교급식의 모델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조사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한 한 끼를 먹으며 영양불량과 질병에서 벗어나고, 배움의 기회를 이어가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

TEKU 대학 내에 저희와 동역해 주시는 음펠와 교수님, 마담 카밀라, 존 마슬린을 통해 지역정부의 연구허가를 진행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음베야 시내 공립초등학교의 학교급식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할 때도 음베야 시 교육공무원과 영양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협조를 구할 수 있었고, 저희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한눈에 다 담을 수 없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연구를 넘어, 실제 변화로

이 사역은 단순한 연구조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탄자니아의 현실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 땅에도 단지 우리를 재정의 통로로만 보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역량을 나누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도 학교급식을 파악하기 위한 학교 방문 설문조사와 정부관계자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세대를 세우도록

학교급식 영양관리자 양성과정에 참여했던 에리카 자매는 현재 식품기술학과 학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센터를 구축하는 초기부터 자원봉사자로 함께해 왔으며, 지금은 센터의 인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리카 자매가 가톨릭 신자이지만, 우리가 품고 있는 영양 사역의 가치와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장기적으로는 이 땅의 영적·육적 리더이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든든히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수양베이커리 카페이야기

고은경 선교사 (미얀마)



멈춤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준비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저희 사역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위드미얀마를 통해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던 '양곤 중퇴 청소년 식음료 분야 직업훈련 사업'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저희는 신변의 안전을 위해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멈춤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귀국 기간 동안 제과·제빵기능사 과정을 수료하여 남편은 제과기능사, 저는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어 바리스타 과정까지 배우며 다시 시작될 직업훈련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상황은 저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민불복종운동으로 2022년에 미얀마 학부모 60%들이 자녀들을 정부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양곤 중퇴 청소년 식음료 분야 직업훈련 사업은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하며 아쉽지만 군정부에 이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닫힌 문 뒤에 열어 주신 새로운 길

지난 이야기를 장황히 쓰는 이유는 이것이 수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좋은발 교회를 개척하며 품었던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직업기술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꿈은 비록 위드의 직업훈련학교가 문을 닫았어도 계속되었기에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배워온 기술을 활용해 작지만, 저희만의 직업훈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양희선 목사는 빵 만드는 것을 재미있어했고 심지어 맛있게 잘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코이카 사업으로 구입한 장비들은 전부 이양을 했으나 저희에게는 쿤밍 라마나웃수양관을 정리할 때 받아놓은 제빵용 20kg 믹서, 작은 전기오븐 2대와 각종 제빵용품이 있었습니다. 위드 사무실로 임대한 4층 장소 한 칸을 제빵 실습실로 꾸미고 빵 만드는 실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간 주변 지인들에게 빵을 나누다가 칭찬과 지원을 받으며 드디어 “수양인터내셔널컴퍼니”를 세우고 “수양베이커리 앤드 트레이닝센터”로 영업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군부가 외국인들을 경계했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까다로웠는데 회사설립과 영업허가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교민 대상으로 온라인 주문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모여지는 대로 데크 오븐, 믹서, 작업대 등을 하나씩 갖춰 갔습니다. 좋은발 유치원 교사로 사역해 왔던 아이세이보아가 아따웅전도사의 결혼으로 당시 교회 내 기거할 곳이 없어 교사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머물고 있었는데 저희가 수양에서 함께 사역하겠냐는 제안을 하자 흔쾌히 양곤으로 올라와 주었습니다.

빵과 복음이 함께하는 공동체

얼마 지나지 않아 기거할 곳이 없는 청소년을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기숙사용 집을 임대해 아이세이보아가 기숙사 사감을 맡아 생활 전반을 지도하며 저녁마다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진 불우한 청소년들이 수양으로 왔다가 때로는 적응을 못 해 돌아가기도 하고 또 기술을 배우는 싶은 친구들은 남아서 적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에 “동아프리카보냄받은교회”의 소식을 접하면서 저희도 8월부터 세 명의 직원, 직원의 지인 한 명과 함께 “수양보냄받은교회”로 주일 예배를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과 육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저희의 바람을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4층의 작업공간은 꼭대기 층이어서 여름에 빵을 구우면 실내 온도가 38도가 넘었고, 더위에 저희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환경에서 빵을 만들 수 있기를, 또 온라인에서 벗어나 베이커리를 오픈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각기 다른 배경의 세 가정들 감동하게 하셔서 귀한 재정을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2025년 5월에 단독주택을 임대해서 에어컨이 갖추어진 제빵실, 남녀 직원기숙사, 베이커리 매장, 카페 공간, 순환 정전에도 운영 가능하게 해주는 태양광 시설까지 갖춘 “수양베이커리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년간 TEE 교재로 제자 훈련을 받아온 직원 텐다우에게 수양보냄받은교회의 첫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어지는 믿음의 걸음

1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는 여전히 힘겨운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월세를 낼 만큼 자립이 되지 않았고, 청년들이 수입이 좋은 해외노동자로 나가다 보니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역자 아이세이보아는 비자가 나오는 2년 내로 남편이 사는 호주로 떠날 것입니다. 이란-이스라엘 전쟁의 여파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서 방문객이 너무도 줄었고, 육체노동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가 아프기도 하고 때로 제자들은 저희를 실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저희가 감당할 분량만큼 저희를 훈련하고 계시며 오늘도 그 소망을 두시고 수양을 이끌고 계십니다. 수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빵실습



성경공부



예배



세례식

<성경의 맥과 핵> 사역



허계영 선교사 (대만)

2004년 중국 운남성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 10년간 제 개인의 영성 관리를 위해 매일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국어로 성경을 파고들며 역사와 지리를 융합한 ‘나만의 성경 노트’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지루하고 방대한 작업이 대체 어디에 쓰일지 전혀 몰랐지만, 훗날,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영적 내공 쌓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대만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남편 사역을 돕던 중, 과거 임상영양사 시절의 ‘영양교육 자료 개발 노하우’와 중국에서 10년간 정리해 놓은 ‘나만의 성경노트’가 머릿속에서 번쩍하며 스파크를 일으킨 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독창적인 교육자료들은 대만의 원주민과 한족뿐만 아니라 서양인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신학교 문턱도 안 가본 평신도 여성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현지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과분한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그동안 대만 사역자들을 위해 개발한 자료들을 모아 2020년 한국에서 <성경의 맥과 핵>한국어본이 출판 된이후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자님들의 헌신 덕에 2025년에는 중국어 간체본이, 2026년에는 중국어 번체본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 몽골어로도 번역,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현재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로도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맥과 핵]이 향후 70 개 언어로 번역되어, 지구촌 어디든 땅끝 선교지마다 이 책으로 많은 영혼들이 성경을 ‘쉽고, 재미있고, 깊이있게’ 읽도록 돕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외국어 번역본들은 오병이어 선교회 기관의 출판사 <52 books> 에서 출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재미있고, 깊이 있게” 전해지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에 전자책으로 출판한 기독교 변증소설 『인턴 J』를 수정·보완하여, 2026년 4 월 종이책 출판을 하였습니다. 이 소설은 예수님이 한 AI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회사 창립자와 나누는 진지한 대화를 통해, 비기독교인에게는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기독교인에게는 신앙생활 중 누구나 한 번쯤 품어 보았을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전자책 출판 이후 원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식상한 표현, 예측 가능한 전개, 설교조의 대화 등 소설로서의 완성도가 미흡한 부분

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약 석 달에 걸쳐 꼼꼼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흥미와 몰입도 면에서 완성도를 대폭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에는 『인턴 J』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대화 중, 특히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만을 엄선하여 『J의 명언노트』를 함께 출간하였고, 향후 『인턴 J』도 영어본, 중국어 번체본·간체본으로도 출판하여 다양한 언어권에서 전도용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길 소망 합니다.



사랑으로 지구촌에 꿈을 급식하는 영양교사

김윤실 영양교사 (경기강선초등학교)

저는 31년간 학교 영양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해 작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영양교육, 급식경영, 위생관리, 식문화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 정책자문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공과 경험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부터 오병이어선교회를 알게 되어 함께 하고 계신가요?

1993년 대학 시절, 세브란스병원 실습 중 허계영 선교사님을 통해 오병이어선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해 국내 사역에 참여하면서, 제가 공부하고 준비하던 식품영양 분야가 선교 현장에서도 귀하게 쓰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 오병이어선교회와 함께하며 작은 섬김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선교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었던 순간들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오병이어선교회와 함께 「국제위드봉사단」과 연계하여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2004년 티베트에서는 아동·청소년 위생교육과 학교급식, 어린이캠프를 섬겼고, 2018년 캄보디아에서는 영유아 및 지역사회 영양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미얀마에서는 학교 중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식문화와 한식요리 교육을 나누었으며, 2024년 탄자니아에서는 동아프리카 학교급식과 식품영양교육,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에 함께했습니다. 2025년에는 몽골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한국 방문을 통해 영양정보를 교류하였고, 2026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캠퍼스와 가정방문 사역, 청년리더자 교육, 학생복음캠프를 섬겼습니다. 또한 2026년 9월에는 몽골 학교급식 현장을 방문하여 학교급식 컨설팅과 교육으로 현장의 필요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각 나라의 환경과 필요는 달랐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신뢰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식품영양 전문가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나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학생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해외 사역지에서도 영양교육과 학교급식 개선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현지 선교사님들과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오병이어와 함께 성장한 이야기 또는 앞으로 오병이어선교회에 거는 기대와 소망을 들려주세요.

오병이어선교회를 통해 '식품영양 전문성이 곧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과 영양교육 분야의 경험을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아이들과 나누며, 건강한 먹거리와 복음을 함께 전하는 사역에 계속 동참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식품영양 전문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문성을 선교 현장에서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병이어선교회가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탄자니아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영양교육 강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뜻, 이어가는 복된 발걸음

오병이어선교재단 이사장 이·취임식

2026년은 1986년 8월 창립된 오병이어선교회(설립 초대회장:이용숙)가 40주년, 오병이어선교회 모체로 2006년 5월 설립된 (사) 위드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현재 '오병이어선교회', '(사) 위드' 그리고 2003년 4월 설립된 '위드 영양개선연구소'가 각자의 고유목적 가지고 한 비전 안에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는 오병이어선교재단이 [오병이어선교회]를 법적으로 공고히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섬겨주셨던 이영남 이사장에 이어 2대 이사장으로 김재철 이사장이 지난 2월 오병이어선교재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오는 8월 25일(화) 사랑의 교회 연약 채플에서 개최되는 오병이어선교회 40주년 감사예배 때 오병이어선교재단 이사장 이·취임식을 함께 거행할 예정입니다.

•이임 이사장_이영남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취임 이사장_김재철 ((주)선진엔텍 대표)

“하나님 은혜에 감사”

이영남 이임 이사장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하는 지난 40년 동안 오병이어와 함께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인적 회복이라는 가치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백 되고, 그 전공과 직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노력하는 오병이어선교회와의 만남은 어느새 제 인생에도 소중한 부분이 되었으며 더없는 영광이자 감격입니다.

당시 (사)대한영양사협회장으로 재임하던 중 이용숙 회장과 만남을 시작으로 오병이어선교회가 창립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식품영양 전문인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모여 결식아동과 불우한 이웃을 섬기는 '복음 도시락'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지구촌 Yellow Window 이웃을 향해 선교로 인도함을 받은 과정은 그 자체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용숙 회장, 윤희향 선교사와 광미란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의 순종과 헌신이 오늘날 이 소중한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신에게 메시지 않고 공동체 부름과 비전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선교회 식구들의 모습이 늘 눈에 아른거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성, 탁월한 전문성 가지고 묵묵히, 그러나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고 기도해 온 오병이어 사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헌신과 사명으로 이끌어 갈 오병이어선교재단의 김재철 신임 이사장님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은혜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병이어에 불러주시어 함께 동역하게 하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여정, 오병이어와 함께”

김재철 취임 이사장



저는 고교 시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말씀에 제 삶을 온전히 걸었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가족들을 아프게 했던 부족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머리를 들 수 없지만, 주님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이 제 삶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이끌림 안에서 선교와 섬김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은, 지난 50년 신앙생활의 가슴 깊은 곳에서 지속되어 온 저의 변함없는 소망이며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함축된 주님의 말씀을 모토로 삼고, 식품영양 전문인들을 주축으로 지난 40여 년간 오직 영양과 복음 한 길을 걸어온 오병이어선교회와의 만남은 그 고집스러운 정도의 신실함과 여성 특유의 꼼꼼함, 그리고 내 것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재정 운영에 저는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아무지고 책임감 있게 일하시는 오병이어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귀한 단체이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선교회가 2006년 모체로 설립된 (사) 위드 기관에 함께 있다가, 기관의 고유목적 명확하게 하고 법적으로 더 공고히 하기 위해 2022년 5월 (재) 오병이어선교재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때 이사로서 섬기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탄력을 받아 이사장직이라는 막중한 자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나온 제 발걸음에 비추어보면 저와는 전혀 관계없을 법한 이 귀한 직책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겠지만 회장님과 대표님의 눈에 띄어 발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래 지난 오병이어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선교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은 재정과 힘든 세월을 오직 한 몸과 기도만으로 뚫고 나온 이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식품영양 전문인들의 소중한 단체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 봐 지금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영남 이사장님의 오랜 발자취를 잘 따라서, 회장님과 대표님 그리고 모든 이사님과 오병이어 가족들의 조언과 사랑을 바탕으로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직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 지원과 넓으신 마음의 이해 그리고 지속적인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소식 및 광고



2025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

45기 DUO WCS (부부 전인공동체학교)

2025년 10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주간 경남 합천 오두막공동체에서 부부 선교 리더십을 세우는 '45기 DUO WCS(부부 전인공동체학교)'가 '찬양하라 기뻐하라(속 2:10~11)'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참여했던 수료생 7명(장·단기 선교사 3가정, 신학대학원 진학 준비생 1명)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부르심의 소명을 이어가고 있다. WCS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주역으로 서가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26년 하반기는 싱글, 청년 학생 대상으로 모집 예정 이다.



탄자니아, 캄보디아 '인턴 선교사' 파송

위드영양개선연구소에서 약 2년간 사역했던 윤혜영(탄)·장성은(캄) 사역자가 인턴선교사로서 1년간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각각 2026년 3월 10일 탄자니아로, 2026년 4월 1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윤혜영 인턴선교사는 탄자니아 지부의 학교급식조사연구 사역, 장성은 인턴선교사는 캄보디아 국립 소화 병원에서 임상영양관리 사역 등 전문인 사역을 하게 된다.



북한영양급식을 준비하는 '북한영양급식위원회'



2023년 2월 18일 발족된 이후 월 1회(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7시,온라인)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북한 어린이 영양개선 지원 활동을 위한 준비모임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배워가며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어린이 영양개선을 위한 주님의 때를 준비 하고 있다. 지난 2025년 12월 20일 에는 북한 이탈주민을 돕고있는 '꿈꾸는 동행' 기관과 연합으로 「제2회 만나 캠프」 개최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 교육과 활동들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사역

여명학교 논현기숙사에서 생활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위한 정서적 필요와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멘토링 사역이 2022년 7월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는 매년 2~3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생활 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학생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돕는 일이 되었다.



오병이어선교회 39주년 감사예배

2025년 8월 21일(목) 오후 7시, 39년 동안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오병이어선교회 39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마민호 교수(한동대 국제지역학)의 '전략적 선교와 지역연구'라는 메시지에 이어 선교회 본부 간사들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곡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다. 예배 참석자들과 본부 및 해외 사역자들은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후회 없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다지며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2026 전국기독교식품영양전문인 연합예배

2026년 7월 4일(토) 전국식품영양 전문인 연합예배가 '식품영양전문인의 소명' 주제로 6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박정미 영양교사(경기김포 가현초등학교)는 학교 현장에서의 식품영양전문인의 실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양일선이사장((사) 위드)의 격려사, 김윤희 팀장((사)위드 경영지원팀)의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 대한 간증, 고은경 선교사(오병이어선교회)는 선교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났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간증하였다. 이어서 광미란 대표 인도로 진행된 합심기도회는 보냄받은 식품영양 전문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삶, 다음 세대의 영육 간 건강함과 바른 식습관, Yellow Window와 북한 영양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품영양인으로서 학교, NGO 기관, 선교지 등 저마다 다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삶을 나눈 메세지와 간증을 통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보냄받은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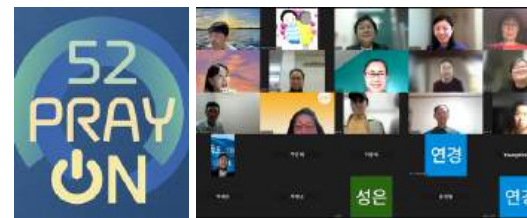


오병이어 온라인 기도모임(52 pray on)

국내·외에서 사역하는 오병이어공동체 사역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모임(52 pray on)은 연 4회 진행되고 있다. (3월, 5월, 9월,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2025년 9월 30일 라오스 지부, 11월 25일 마다가스카르 지부, 2026년 3월 31일 세종대전지부, 5월 26일 방글라데시 지부 인도로 기도모임이 진행되었다.

52 프레이온 모임에 함께 하는 라마나웃기도회는 보츠와나(9월), 짐바브웨(3월), 스탠 3개국(우즈베키스탄, 카바흐스탄, 타지키스탄)(5월)을 위해 'Yellow Window 땅과 보건영양, 지역, 복음 회복을 위해 기도 하였다.



선교한국 대회 선교단체 박람회

2025년 8월 4일(월)부터 8월 7일(목)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세상의 희망 예수' 주제로 1,000여 명의 청장년이 모여 선교한국대회가 열렸다. 오병이어선교회도 '선교단체 박람회' 부스로 참여해 선교자원을 동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300여 명의 청·장년들이 방문하여 식품영양 전문 선교단체라는 점과 선교지 영양 사역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선교한국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오병이어선교회 사무실에서 직접 튀긴 빵튀기를 아침 간식으로 제공했다.



오병이어선교회 CI, BI 및 홈페이지 리뉴얼

오병이어선교회 40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체 연합 기관이 한 비전안에서 연합 하는 의미로 각기관의 심벌을 동일 하게 사용하는 CI, BI 작업을 2026년 4월 완료하였다. 이에따라 6월에는 오병이어선교회, 7월에는 위드 (위드영양개선연구소) 각기관의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단장하였다.



오병이어선교재단 제2대 '김재철 이사장' 취임

1986년 설립된 오병이어 선교회가 지난 2022년 5월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법인체가 되어 오병이어선교회를 법적으로 공고히 뒷받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초대 이사장으로 섬겨주셨던 이영남 이사장에 이어 2대 이사장으로 김재철 이사장이 2026년 2월 오병이어선교재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8월에 있을 오병이어선교회 40주년 감사예배 시 오병이어선교재단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해외 소식 및 광고

2025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

몽골

몽골 옴스 유목민학교 위생키트 및 저소득 빈민가정 난방용 석탄 지원



2023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었던 몽골 옴스 구제 사업을 통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인 서북부 옴스 지역의 유목민학교와 저소득 가정에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전했다. 2025년 10월에는 하르가스

숨 학교 기숙사생 124명과 우문고비숨 학교 기숙사생 200명, 총 324명의 청소년에게 비누, 세탁세제, 휴지, 물티슈, 치약, 생리대 등이 담긴 위생용품 키트를 전달했다. 또한, 한파가 가장 극심한 옴스 지역의 저소득 빈민 가정을 위해 겨울철 난방 연료를 지원했다.

몽골 도른고비 지역 장애인 통합적 지역개발 사업 지원

2026년 7월 몽골 현지 NGO '나의 친한 삶'이 진행하는 도른고비 지역 장애인 쉼터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10평 규모의 이동식 건물로 마련될 이 공간이 장애인에게는 자립과 자활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고, 부모에게는 돌봄 교육을 지원하는 통로가 되어 장애인들이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기를 기도한다.

캄보디아

청소년을 위한 해외장학 멘토링 사업과 컴퓨터 교실 지원

2025년 2월부터 캄보디아 '해외장학 멘토링' 사업이 다시 시작되어 현재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망의 새빛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대상자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을 든든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고 노트북을 후원받아 2026년 3월부터 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에 컴퓨터 교실이 개설되었다. 이를 통해 평소 컴퓨터를 접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라오스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라오스 비엔티엔 수도에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교육 지원이 부족한 지역의 께마니초등학교 아동 3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 2월에는 노트북과 프린트 등 교육기자재를 지원했고, 4월에는 1일 학교급식을 진행했다. 5월에는 한국에서 보내온 후원물품으로 학교 바자회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학교운영금으로 지원했고, 6월에는 3주간 영어, 수학, 미술, 음악, 한국어, 과학실험, IT교육, 소풍, 달란트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여름학교를 운영했다. 아울러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 축하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등 교육 현장의 필요를 직접 확인하고 찾아가 함께하는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미얀마

중퇴 청소년들을 위한 수양 베이커리 & 트레이닝센터

중퇴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꿈을 세우는 '수양베이커리 & 트레이닝 센터'는 2025년 3월 기숙사가 함께 있는 매장을 새롭게 열었다. 이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살며, 함께 예배하며 신앙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수양 보냄받은 교회의 예배 장소이자 일터인 이곳에서 직원이자 제자인 아이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삶의 건강한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한다.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남부 툴리아 지역 사업발굴을 위한 탐방 및 지원



본회 광미란 대표와 마다가스카르지부 사역자 5명은 지난 2024년 11월 1차 방문에 이어 2025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두 번째로 툴리아 지역을 방문하였다. 사역자들은 툴리아 지역의 교육 환경과 학교급식을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툴리아 1지역의 'Bel Avenir NGO 학교급식' 현장을 견학

해외 소식 및 광고

하고, 툴리아 2지역의 교육청과 공립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툴리아 지역의 학교운영체제와 급식 운영 현황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이어 사역의 연장선으로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태풍으로 파손된 툴리아 지역 Besasavy 공립초등학교의 교실 지붕 수리와 교실문 보수를 위한 시설복구비를 지원했다.

비나1센터 환경개선 공사 지원

2025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기존 비나센터가 벨엘센터와 연합 하면서 '비나1센터'로 새롭게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비나1센터는 기존 벨엘학교 학생 70명과 Amborompotsy 지역 도시빈민 가정의 아동(편부모, 다자녀 가정) 30명을 선발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아동 총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니아센터 G2G 사업

마다가스카르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을 막고 학업 유지를 돕기 위한 차세대 청년 리더 양성프로그램인 G2G 사업이 2026년 4월부터 나니아센터 사업으로 시작 되었다. . 안타나나리보 국립대학교 학생이자 과거 멘토로 도움받았던 대학생 멘토 6명이 나니아센터 인근 3개 학교의 고등학생 멘티 36명을 지원한다. 이들은 '배워서 남주자(Learn to Give)'라는 모토 아래 함께 성장하는 세대 간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고 장학멘토링을 통해 학업을 이어간다. 또한, 현지인 매니저 2명이 함께 참여하여 전체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주기적인 멘토링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탄자니아

스와힐리어권 영양전문가 양성의 요람, 동아프리카 영양개선센터 오픈

2025년 10월 11일 탄자니아 음베아 지역의 TEKU 대학교에 동아프리카 영양개선센터(EAIN)가 문을 열었다. 센터가 동아프리카 스와힐리어권 12개국에 영양개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연구와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현지의 건강한 변화를 이끄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TEKU 대학교, 오병이어선교재단, 위드. 위드 영양개선 연구소가 연합한다.

제3회 동아프리카 전인공동체학교(3rd East Africa WCS) 개최



2026년 4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6주간 탄자니아 모로고로에서 영어로 진행된 제3회 동아프리카 전인공동체학교에 탄자니아 훈련생 2명과 한국인 훈련생 2명이 참여했다. 선교사들과 1회 동아프리카 WCS 수료생이었던 디오니시아 간사의 섬김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 삶의 변화를 이루고, 부르신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동아프리카 선교의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오병이어선교회40주년 권역별 선교사 컨퍼런스 개최]

제2회 동아프리카 권역 선교사 컨퍼런스

2026년 6월 8일부터 12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그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요20:21) 라는 주제로 제2회 동아프리카 권역 선교사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선교사 그리고 본부 사역자를 포함하여 어른 25명과 MK 6명 모두 31명의 사역자가 함께 모였다. 사역과 삶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와 풍성한 식사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나눔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오병이어 아시아권역 선교사 컨퍼런스

2026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JIU 만나홀에서 '그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주제로 아시아권역 선교사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몽골, 중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대만, 인도네시아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 그리고 오병이어선교회 이사회, 해외선교위원, 위드 이사회, 전문위원, 본부 사역자를 포함하여 어른 41명과 MK 7명 모두 48명의 사역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사역과 삶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사역자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사역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분깃을 믿음으로 품으며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또한, JIU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나눔과 깊은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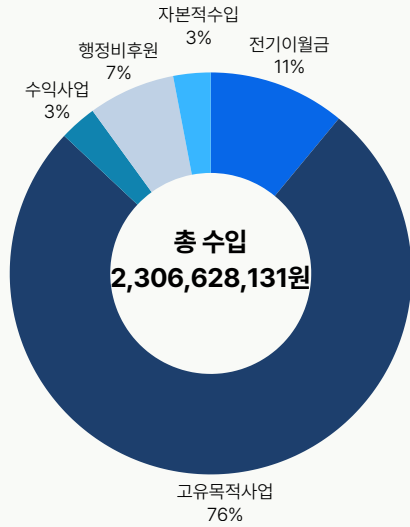
2025년 재정정보 (기간 : 2025.1.1~2025.12.31)

오병이어선교회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선교회는 내부 회계 전문가 감사를 통해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검증 받고 청지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입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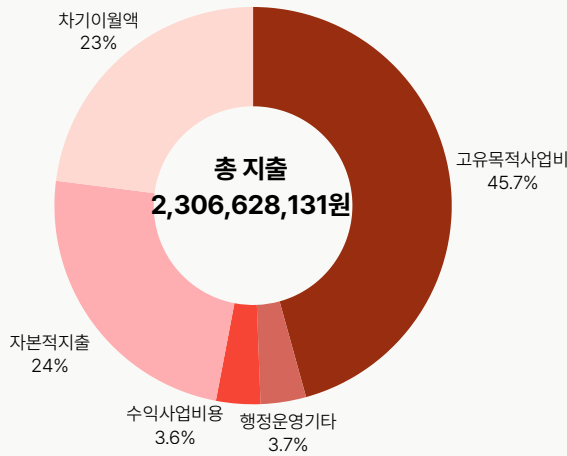
구분	금액	비율
전기이월금	262,843,933	11%
고유목적사업	1,744,871,864	76%
수익사업	78,168,814	3%
행정비후원	159,990,593	7%
자본적수입	60,752,927	3%
합계	2,306,628,13	100%



사업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비율
고유목적사업비	1,054,953,287	45.7%
행정운영기타	86,199,359	3.7%
수익사업비용	80,973,785	3.6%
자본적지출	551,863,846	24%
차기이월금	532,637,854	23%
합계	2,306,628,131	100%



오병이어선교회 후원자 (기준: 2025.7.1~2026.6.30)

(가나다 순)

개인 후원 +

강경자, 강석균, 강석화(김수경), 강성경, 강순철(남은자), 강유선, 강정은, 강정자, 강주영, 경혜수, 고난희, 고미혜, 고성남, 고성옥, 고성철, 고성혁, 고수희, 고유건, 고운영, 고재숙, 고태영, 고하늘, 고한나, 고화란, 박근혁, 박미란, 박성순, 구장식, 구태희, 권선아, 권영대, 권오병, 권오선, 권춘자, 김미영, 김미정, 김경순, 김경옥, 김구환, 김금순, 김금자, 김기영, 김나경, 김남신, 김대형(이성실), 김덕수, 김덕천, 김도경, 김동찬, 김동희, 김두현, 김명박, 김명자, 김명희, 김문규, 김문석(장지혜), 김문수(정문주), 김미경, 김미란, 김민수, 김민정, 김민지, 김민희, 김병석, 김병성, 김병학, 김봉길, 김상미, 김석재, 김성열, 김성희, 김세원, 김세창, 김수빈, 김수정, 김수진, 김수희, 김승원, 김승주, 김왕숙, 김양순, 김여일, 김영미, 김영식, 김영선, 김영식, 김영한, 김예건, 김예림, 김옥태, 김용관, 김원희, 김유진, 김윤미, 김윤상, 김윤수, 김윤실, 김윤주, 김은숙, 김은혜, 김이화, 김인송(고윤희), 김인숙, 김인원, 김재실, 김재임, 김재철, 김정근, 김종길, 김중환, 김주영, 김주희, 김준호, 김중환, 김지선A, 김지선B, 김지은, 김지혜, 김지환, 김진영, 김진희, 김창식(김선미), 김철하, 김태현, 김태훈, 김판준, 김학선, 김한나, 김향근, 김향숙, 김현성, 김현이, 김혜보, 김혜숙, 김혜영, 김혜정, 김호정, 김환웅, 김효선, 김희례(김홍선), 김희진, 나세연, 나영미, 나정철, 나충균, 남수아, 남인순, 남태양, 남호정, 노수희, 노주원, 노현정, 류은영, 류정숙, 류희, 마민호, 마진영, 문경하, 문주태(김미순), 민지숙, 민태익, 박경희, 박덕상, 박덕현, 박범준, 박병기, 박복순, 박성현, 박세준, 박소영, 박소현, 박수경, 박수부, 박순희, 박양희, 박연진, 박영애, 박영일, 박영준, 박영희, 박용자, 박우춘, 박은윤, 박인숙, 박장수, 박정미, 박정숙, 박정혜, 박종영, 박진아, 박현희, 박혜란, 박호, 방숙진, 배명숙, 배문성, 배수민, 배영남, 배지원, 복혜진, 서강일, 서경순, 서연경, 서효진, 석수연, 성명규, 성은희, 성현숙, 손병운, 손수자, 손영삼, 송경옥, 송경은, 송기원, 송미란, 송병민(홍주화), 송성빈, 송성아, 송성은, 송연식, 송인혜, 송지연, 송지현, 송진숙, 신경민, 신경순, 신민서, 신언자, 신의연, 신준희, 심성자, 심영삼, 심재원, 안길원(이광자), 안나진, 안미라, 안미애, 안병화, 안선영, 안은경, 안자현, 안정미, 안정민, 안천록, 안치훈, 양동웅, 양미애, 양옥수, 양일선, 양희선(고은경), 엄광훈, 엄은주, 엄혜란, 여진수, 오경, 오경환, 오명순, 오선민, 오숙진, 오영호, 오은주, 오현, 우지석, 우홍주, 원용일, 원준희, 유감숙, 유명숙, 유병진, 유상근, 유수미, 유수진, 유예지, 유용서, 유인환, 유진덕, 육근영, 육도현, 육지은, 윤대환, 윤상진, 윤성미, 윤소선, 윤수은, 윤영선, 윤완진, 윤정일(주범순), 윤정현, 윤주길, 윤향숙, 윤혜진, 음대웅, 이경숙, 이경애, 이경일, 이금미, 이금자, 이기호, 이덕호, 이도경, 이동복, 이동숙, 이명숙, 이명희, 이미영, 이미자, 이미정, 이병철, 이보라, 이상순, 이상주, 이상훈, 이선옥, 이성수, 이세연, 이소희, 이순향, 이승복, 이승철, 이아영, 이영남, 이영남, 이영림, 이영민, 이영옥, 이영희, 이윤규, 이용숙, 이윤옥, 이윤주, 이윤진, 이은경, 이은미, 이은숙, 이은진, 이은희, 이일영, 이재욱, 이정림, 이정미, 이정수, 이정화, 이정희, 이종미, 이종범, 이종숙, 이종순, 이지영A, 이지영B, 이지은, 이지혜, 이천호, 이철봉, 이한길, 이현수, 이현정, 이현주, 이형빈, 이혜옥, 임경식, 임길순, 임명옥, 임미영, 임은경, 임재민(고주영), 임재훈, 임진목, 임채은, 임철수, 임혜지, 임혜진, 장금미, 장미연, 장성은, 장수남, 장신자, 장연화, 장예림, 장재정, 장준호(조시경), 장철순, 장철현, 장한우, 장현정, 장혜미, 장혜진, 전선화, 전유자, 전은실, 전은혜, 전필수, 정고은, 정다영, 정명문, 정방화, 정삼희, 정수연, 정아림, 정영선, 정옥경, 정요섭, 정유진, 정은영, 정인숙, 정인정, 정재균, 정찬옥, 정택순, 정평오, 정향미, 정현영, 정희숙, 조귀호, 조미영, 조민승, 조병화, 조봉희, 조우상, 조위자, 조은경, 조정일, 조철희, 조희훈, 주미련, 주범순, 주사랑, 주영란, 주재상, 주지은, 지후에서, 진군자, 진민정, 차영민, 채성숙, 채지희, 천명길, 천진광, 최갈렐, 최경미, 최미화, 최민숙, 최선미, 최선정, 최선주, 최선혜, 최성경, 최성현, 최숙희, 최언영, 최영상, 최옥선, 최이안, 최자영, 최재규, 최재효, 최정호, 최진철, 최철주, 최현미, 최혜린, 추옥란, 하상철, 하영란, 하태균, 한경열, 한경주, 한국일, 한명선, 한봉원, 한상희, 한숙연, 한은경, 한현열, 허경애, 허계영, 허윤영, 허정화, 현석진, 홍성희, 홍순름, 홍예문, 홍재호(권미영), 황미향, 황민경, 황보진향, 황상미, 황은경, 황익근, 황장선, 황정숙, 황주선, 황진희, 황혜경, 무명388.(880)

기관·단체 후원 +

개봉중앙교회, 고수교회, 공주중앙장로교회, 광양영주교회, 광주은광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카한인선교교회, 단비교회, 대구제일감리교회, 대현교회, 도심리교회, 동성교회, 동신교회, 동현교회, 마천세계로교회, 부르심교회, 북경한인교회, 분당우리교회, 사랑의교회, 살기기쁜교회, 상남교회, 상해은혜의교회, 새길감리교회, 새벽이슬교회, 서울강남노회선교부, 서울영동교회, 서초동교회, 서현교회, 선교한국, 선일선교회, 수원제일교회, 시흥동산교회, 아름다운교회, 아시안미션, 안흥교회, 영락교회, 영월성은감리교회, 영흥교회, 예뽉순복음교회. 예성교회, 용두동교회, 은성교회, 은진교회, 은혜나눔교회, 의정부중앙감리교회, 인천산들교회, (재)에젤선교회, 전인교회, 전주강림교회, 주담교회, 참행복한교회, 척국교회, 천안갈릴리교회, 천안한빛감리교회, 청양교회, 청운교회A, 청운교회B, 초량교회, 팔복교회, 팔송정교회, 평촌교회, 포항성결교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합신총회세계선교회, 해성교회, 해오름교회, 함남아름다운교회, 호산나교회.(68)

(사)위드, (주)수앙에프엔지, (주)선진엔텍, (주)선진종합, (주)이엠에이타, 경원기천대SFC, 기드온, 대구BBB, 말일회, 선진조선(주), 선진테크 주식회사, 웨슬리재단, 재원빌딩, 주식회사 씨애텍코리아, 한빛약국.(15)

물품 후원 +

- 기관: 예성교회, 연세유업, 농심켈로그(주), 시냇가푸른나무교회(4)
- 개인: 광동경, 김경민(육지은), 김미순, 김석모, 김송희, 김윤실, 김윤수, 김재실(김희선), 김재철, 김혜영, 박연아, 박은혜, 박현주, 송병민(홍주화), 신연숙, 신영자, 안병화, 양일선, 유수미, 유인환, 이금자, 이덕호, 이명숙, 이영남, 이정수, 장연화, 주지은(윤형빈), 채인숙, 최선정, 최성현(이옥), 최숙희, 허정화, 황혜경, 황혜옥.(39)

오병이어선교회 선교사 후원 안내

오병이어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귀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본회 파송 선교사는 각각 선교사별 신한은행 전용 후원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 재단' 예금주명이 앞부분만 나올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나다 순)

번호	이름	은행	계좌번호	번호	이름	은행	계좌번호
0	본부 사역자	신한	100-035-952967	14	오명혜	신한	100-036-121114
1	강순철 남은자	신한	100-036-120680	15	유수진	신한	100-036-121228
2	고하늘	신한	100-036-121146	16	윤향숙	신한	100-036-120553
3	길미정	신한	100-036-120520	17	이도경	신한	100-036-121153
4	김동희	신한	100-036-121299	18	이영옥	신한	100-036-121242
5	김문석 장지혜	신한	100-036-120650	19	이용숙	신한	100-036-121203
6	김선미(캄)	신한	100-036-120763	20	임재민 고주영	신한	100-036-121250
7	김인송 고윤희	신한	100-036-121178	21	장성은	신한	100-036-120464
8	김창식 김선미	신한	100-036-120756	22	장준호 조시경	신한	100-036-120635
9	김혜정	신한	100-036-120724	23	주은혜	신한	100-036-120578
10	박경희	신한	100-036-120642	24	천요한 유한나	신한	100-036-121235
11	송성아	신한	100-036-121324	25	최갈렘 김수아	신한	100-036-121330
12	안정미	신한	100-036-121371	26	홍재호 권미령	신한	100-036-120496
13	양희선 고은경	신한	100-036-121280				

오병이어 함께하기

함께해 01	 선교사 후원	선교사 전용 후원 계좌를 통해 선교사 개인과 가정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문의 02-322-4630 선교사지원부
함께해 02	 MK 후원	선교사 자녀의 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문의 02-322-4630 선교사지원부
함께해 03	 기관 후원	오병이어 기관 운영 행정을 위한 필요 재정을 지원합니다. 🏦 신한은행 100-035-952967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함께해 04	 선교사역 후원	YW 지역의 건강한 변화와 회복을 위한 선교사역의 필요 재정을 지원합니다. 🏦 신한은행 100-036-027160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함께해 05	 현지인 사역자 후원	준비된 현지인 사역자 지원은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100-036-027160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 입금자명: (후원자명)사역자후원
함께해 06	 해외장학 멘토링 후원	꿈을 찾아가는 현지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신한은행 100-036-027160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 입금자명: (후원자명)멘토링후원
함께해 07	 오병이어 하우스 후원	공동체 영성훈련, 선교훈련을 위한 훈련센터 및 선교사를 위한 안식관 마련을 지원합니다. 🏦 신한은행 100-036-027190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바오밥 펀드(Baobab Fund)

선교지에서 갑자기 터지는 재난, 급성 질병, 전쟁과 법적 위기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Emergency)은 사역자의 삶과 선교지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가장 예마른 황무지에서도 수천 리터의 물을 끌어 생명을 살리는 '바오밥나무'처럼, 위기의 순간 신속하게 생명수를 공급할 긴급구호 기금 '바오밥 펀드(Baobab Fund)'”

선교지의 위기 순간을 지키는 든든한 희망이 되어주세요

🏦 신한은행 100-036-121185 |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 입금자명: (후원자명) 바오밥

오병이어선교회

지	금	여	기
우	리	함	께
나	누	어	요

(재)오병이어선교재단 후원 | 신한 100-035-952967



홈페이지

www.yellowwindow.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yellowwindow52



인스타그램

[fngn_52](https://www.instagram.com/fngn_52)



유튜브

<https://url.kr/2uflmb>



오병이어선교재단

오병이어선교회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의 건강한 회복과 변화를 위한 총체적 선교로
「오병이어선교회」와 「위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연합합니다.